

실시간 소통하며 안방서 공연 즐겨요

광주문예회관 생중계 GAC 안방예술극장

무관중 라이브공연 댓글 호응 온라인으로 색다른 참여 매력

광주문예회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방예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각(GAC)나오는 TV'를 통해 첫 생중계된 GAC 안방예술극장은 시작 5분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기대하는 관객들의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2시 정각이 되자 광주문예회관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방송이 시작됐다.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을 시작한 TBN 교통방송 박광신 아나운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약 2주간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공연장에 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안방예술극장이 마련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관객들을 위해 좋은 공연을 제공하겠다"고 첫인사를 밝혔다.

첫 무대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액막이 타령'으로 시작했다. '액막이 타령'은 정초에 풍물패가 각 가정을 돌며 초복을 빌어주던 과정에서 부르던 노래로 좋지 않은 기운을 몰아내고 집터를 수호하기 위해 부르던 의식이다.

의식요답게 크고 힘찬 목소리의 타령으로 곡이 시작됐다. 흥을 돋우는 팽과리 소리와 구성진 태평소 연주가 한데 어우러져 풍물패에 섞여 노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며 풍물패를 불러 마당에서 간절히 복을 빌었듯 옛 선조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다음 무대는 아버지에 대한 향기라는 뜻의 '대금을 위한 다향'으로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곡이다. 그리움을 주제로 한 곡인 만큼 구슬픈 대금 소리와 배경을 채우는 차분한 가야금 소리가 떠나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자식들의 울음소리처럼 느껴졌다. 실시간으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른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공연은 가야금 2중주인 '침향무' . 인



판소리 '황성 올라가는 대목' 공연 모습 캡처.

도의 향기 속에 추는 춤이라는 뜻으로 신라 불상 아래에서 구도의 자세로 춤을 추는 승려의 모습을 표현한 창작곡이다. 빠르고 섬세한 가야금 음이 속세를 뒤로하고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승려처럼 가볍다.

같은 날 오후 3시, 광주시립창극단의 라이브 공연이 이어졌다. "에이 이놈의 코로나"를 외치며 등장한 놀부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가지고 온 마당쇠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시작된 공연은 '심청가' 중 심봉사가 황성에서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는 내용을 담은 대목인 '황성 올라가는 대목'으로 그 문을 열었다. 이복순 수석단원의 한 맺힌 소리가 도망가버린 뺨덕 어멈을 향한 심봉사의 한탄처럼 들렸다.

이어진 국가 무형문화제 제 97호 전통무용 '살풀이'는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민속춤의

하나로 살을 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지선 수석단원이 흰 치마저고리에 쪽을 지고 흰 수건을 휘날리며 살풀이가락에 맞춰 춤을 추자 소통하던 관객들은 "살풀이처럼 코로나도 썩 몰라갔으면 좋겠네요"라며 실시간 감성평을 남기기도 했다.

GAC 안방예술극장은 수요일엔 교향악단과 합창단, 목요일엔 국악관현악단과 창극단의 공연을 오후 2시와 3시 광주문예회관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영상을 보면서 채팅창에 참여하며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라이브 공연만의 매력이기도 하다. 일정 및 자세한 공연 내용은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로 문화예술활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즘, 집에서 광주시립 예술단체의 온라인 공연을 통해 색다른 참여형 공연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오지현 기자

코로나19 모금 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 문화예술계 예술인 후원 텀블벅·카카오페이 모금액 50% 지원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으나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는 아직 공포 얻어볼았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응원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텀블벅과 카카오페이를 통한 코로나19 긴급 모금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텀블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단체)의 프로젝트를 텀블벅에 올린 후, 모금액 50%를 달성하면 목표 모금액의 나머지 5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도 또한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를 올리고 직접 기부, 공유기부, 응원기부, 댓글기부 등을 통해 모금액을 모을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프로젝트 개설 후 약 7일 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한해 모금 종료일 하루 전 최종 모금액의 50%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봄(Spring)을 잃은 문화예술계에 생명의 상징인 예술나무를 통해 다시 봄을 선물하며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살펴보고 돌보는 의미를 가진 '예술나무 다시, 봄!'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생계형 일자리'로 뛰어들고 있는 예술가들이 다시 한 번 세상을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원은 예술나무 코로나19 긴급 모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6월말까지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문화재단,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공모

내달 8~16일까지 접수 문화예술인 지원책 마련 코로나 피해 설문조사도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거리예술 창작공연 발굴 및 야외공연 기반 조성을 위한 '2020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광주시에 소개하고 거리 예술의 장르적 특성을 담은 창작 작품을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전문 문화예술법인 또는 등록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는 무용, 연극, 인형극, 마당극, 마임, 마술 퍼포먼스 등 모든 공연 장르가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창작·초연 작품을 야외공연장에서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단체 ▲공익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 ▲실무역량 또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우선 선정하며, 실내공연을 단순히 야외로 옮긴 형태는 제외한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프.

/광주문화재단 제공

기획 유형으로는 ▲브랜드 공연(무용, 연극, 음악 등) ▲거리공연(마임, 퍼포먼스, 마술, 저글링, 인형극, 마당극, 기타 등) ▲소규모 거리

공연 등으로 야외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해 우수공연을 상품화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접근성을 확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광주문화재단은 총 4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이상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단체당 최소 500만원~최대 5,00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내달 8일부터 16일까지 이메일(gjcf3@daum.net) 접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설문은 ▲연령대 ▲활동 장르 ▲설립 경과(단체·업체) ▲구체적인 피해 정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자체 대책이나 방안 ▲피해복구를 위해 광주문화재단에게 요구하는 지원 ▲코로나19 관련 기타 의견 등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바쁘더라도 꼭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문 회신은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iseon0506@naver.com) 또는 팩스(062-670-7489)로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제미진 전남'



술발 해변 울포해수욕장

안규금

알몸으로 뛰 들던 눈부신 바다 파도소리 술향기에 대로인데 개복쟁이 친구들 어딜 갔나 다시 함께 뛰어들고 싶다 훌쩍 벗고 파도 위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